

#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자연과 현상

## phenomenological representation of nature in Display

임진이\* / Lim, Jeanny

### Abstract

There is so much difference in the way we perceive nature whether from eastern or western, present or past standpoint. However, awareness of coexistence between human beings and nature along with the concept that the most natural is the most beautiful remain unchanged. The desire to describe the beauty of nature have existed all through the ages, but the (new) naturalism movement was spawned in our time when so much devastation and side effects took place for the expediency of nature, and field of display has been trying new interpretation of nature with direct or applied method.

Naturalism trend is studied using the categories such as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nature, space concept in western and eastern society, and the definition of view of nature in modern time. Elements of Naturalism display are classified into the element of physical properties and element beyond the physical properties, and then methodology on naturalism display is investigated, using the illustration of display examples, in order to know how the most essential elements of display, which are the physical properties such as space, light, object, glass, are expressed based on the elemental concept like nature, an accident, dynamic state, variability.

As mentioned above, Naturalism display consists of physical properties and phenomenon. How to give strong impression to a spectator depends on the ability to create effective space applying these element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omes to surface in a time when the tremendous emphasis is put on the importance of nature and concerns about the role of display has become even greater.

키워드 : 자연주의, 자연관, 디스플레이, 물성, 현상.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로서 대량생산, 대량소비와 결부되어 인간성 상실과 정신적 빈곤에서 오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인간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현상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모더니즘 이전 시대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로의 진로를 찾고자 한다. 이러한 현상은 미술, 무용, 연극, 문학, 음악, 전시 공간 등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의 산업물 보다는 인간과 늘 함께 공존하고 있는 자연에서 정신적 안식을 얻고자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경향인 미니멀리즘 예술사조 이후 두드러지는데 미니멀리즘의 사물의 순수성과 기본에 충실하고자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와 소재에 의한 비인간적인 예술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메마른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자연을 주제로 혹은 배경으로 표현 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예술가들의 자연표현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지면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대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또한 자연표현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표현 방식에 문제점이 지적된다. 자연의 현상성은 자연을 제한적으로 보거나 단지 물성적으로만 해석해 오브제의 연출을 순간적으로 응고된 형태로만 연출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연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을 물성과 현상적 차원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연구의 배경이 있다.

\* 정회원, 홍익대학교 공간디자인 박사과정

##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현대의 미술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이 드러나지 않지만 自然觀은 동, 서양의 문화가 다른 것처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건강하게 살아 보고자 하는 욕구 또한 한결같으므로 이러한 새로운 조류인 新자연주의 개념으로 재정립해보고 자연을 표현하되 직접적으로 도입한 경우와 간접적이거나 은유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자연의 특징과 요소를 물성적 차원으로 접근하여 분석하고, 디스플레이 요소로서 물성 이상의 차원의 형태를 파악해보며 디스플레이 연출 사례는 자연의 변화를 기본으로 하는 우연성, 동태성, 가변성으로 나누어 사례를 찾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2. 디자인과 자연

### 2.1.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이 자연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자연도 인간과 공존하지 않는 한 의미를 잃어버린다.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은 역사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특히 동양의 자연사상(自然思想)과 서양의 자연주의(naturalism)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동양의 자연주의 사상은 유(儒)·불(佛)·도(道)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인간과 자연의 친화력을 기본으로 한다. 자연은 존재의 모습 그 자체인데, 자연은 가만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한다. 그 변화는 끊임없는데, 선악(善惡)이나 미추(美醜)의 범주에 따라 가치를 만족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변화하는 것이 자연<sup>1)</sup>이라고 하는데 반해 서구의 자연관은 동양의 함께 하는 자연과는 달리 정복해야 하는 자연으로 인식되어진다. 서구의 기독교사상이 유대인의 사막 환경에서부터 시작되었기에 생존을 위해서는 자연을 정복하고 개척해야 하는 일은 당연하였으며 이러한 사상적 근거로 중세기 기독교 자연관은 자연을 철저히 분석하여 근대 과학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sup>2)</sup> 과학이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를 마련하여 생활 양식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더불어 자연의 파괴와 오염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위기상황까지 몰아가기도 하였는데,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동양의 자연관과는 달리 서구의 자연관은 인간과 자연을 완전히 분리하여 하나의 객관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자연을 분석하고 탐구함으로써 자연의 근원적인 부분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살펴보고 있다.

### 2.2. 동서양의 공간사유의 관점

공간이란 인간의 보호와 근원적 활동을 에워싸는 환경의 실제적 창조물이며, 이러한 공간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내에서의 인간의 행위와 심리활동 속에서 존재의 중요성이 있으며, 인간의 인지에 의해 관계성을 가지게 된다.<sup>3)</sup> 이러한 공간의 의미는 서구의 개념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서구의 공간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인식되어진다. 즉, 심리학적으로 시각이나 촉각 등의 작용에 의한 공간지각(空間知覺)에 입각하여 공간표상(空間表象)으로서 주어지며, 철학적으로는 그 공간표상에서 출발한 경험적 공간을, 어떤 특별한 요소에 의해서 성격이 부여된 선형적 공간(先驗的空間)과 구별하고 있다. 동양에서의 1차원적인 공간이기보다는 기하학에서의 공간으로 2차원, 3차원의 유클리드 공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동양의 공간의 개념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을 관조하여 본성(本性)을 파악한다. 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움이 아닌 무심(無心)한 경지의 자연스러움을 이야기하는데 고도의 함축성과 간결함은 채우는 아름다움보다 비우는 '여백의 미'를 최고의 예술로써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공간에 사물을 채우기는 쉬워도 여백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구의 공간은 조형성에 의한 채움의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 동양의 조형미는 여백의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동양에서의 공간이 정적이고 무심한 자연스러움이라면 서양의 공간의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 현대에는 서구적인 개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보다 근원적인 차원의 동양적인 공간의 개념으로의 여백의 아름다움 또한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여백이 단순하게 물건의 배경이 아니라 그 자체를 미적대상(美的對象)으로 삼는 것은, 여백과 물건의 상관성(相關性)이 분명하여지고 부터이다.<sup>4)</sup> 그것은 대상(對象)의 너머를 주시할 현상(現象)의 차원이다.

### 2.3. 현대적 자연관(自然觀)

19세기 후반에 나타나기 시작한 자연주의는 서정적이고 청신한 전원풍경을 주로 그리면서 시작되었으며,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자연주의는 현실에 대한 목적론적 설명을 거부하고, 현실을 선입관 없이 실험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예술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연주의는 사실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실주의가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연주의는 그 현상의 이면까지 바라보는 인식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적 자연관으로써 자연을 바라보는 개념은 자연자원의

1) 동양의 미학, 윤재근, 도서출판 동지, 1993, p.34

2) 김현아, 20세기말 서구 가구디자인에 나타난 한국 전통가구 정신에 관한 연구, 홍대석사논문, 1999.

3) 이상호, 인지적 공간개념에 의한 실내건축공간의 표현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3호 2000. 6.

4) 박길룡, 현상으로서의 건축, 국민대학교 조형논총제13집, 1993

황폐화와 산업폐기물의 양산으로 인한 자연을 보존하고 개발의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의식을 모으고 있다. 그러므로 디스플레이 소재 역시도 천연적인 자연소재에만 제한적이지 않고, 과학기술에 의한 환경 친화적인 신소재 등을 사용하여 천연자원의 소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되는 후에도 손쉬운 분해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에도 새로운 가치와 목적을 부여하고 있다. 과학기술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확고한 가치관과 윤리관으로 인간에 관심을 둔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 나타나게 될 때 진정한 자연을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 3. 자연의 요소와 디스플레이의 현상

#### 3.1. 디스플레이의 물성적 요소

##### (1) 공간

디스플레이 공간은 관찰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잠재 의식 속에 또는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조형언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형태는 주로 테마를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관찰자의 경험이나 지식 상상력 등이 동원되어 각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연출요소는 강한 인상을 주지 못하게 되면 곧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관찰자의 의식 속에 남는 요인을 제공하여, 관찰자와의 공간과의 일체화를 유도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오브제로서의 디스플레이는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는 관찰자의 시각은 다양한 각도에서 항상 이동한다 그러므로 디스플레이 공간의 설정은 기존의 3차원의 개념에다가 시간적인 개념이 도입된 4차원의 공간으로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3차원적 공간은 움직이는 관찰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각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진행되었으므로 관찰자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개념을 도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 (2) 빛

사물의 존재와 역할을 정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빛은 인간의 시지각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여 사물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빛의 본질적 가치는 기존의 물리학적인 측면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시대가 흐름에 따라 빛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빛은 신의 의미로서 또는 종교적인 신비의 대상으로 또는 절대적 가치로 여겨지기도 하였고, 변화무쌍한 자연을 바라보는 예술가의 시각으로 해석되기도 하였으며 무제한적으로 방출되는 에너지 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공간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빛을 어떻게 제어하고 이용하는냐에 따라 최적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자연광은 시간과 계

절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자연의 빛을 이용한다는 것은 항상 일정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하는 목적의 연출에서는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빛은 자신의 비물질성 만큼이나 사용되어지는 구성요소들을 비물질화 시켜 그 요소들의 의미를 한 단계 올려놓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sup>5)</sup>

현대에서는 인공조명의 눈부신 발달로 자연광원을 증가하는 인공조명이 전사공간에 활용되고 있다. 인공조명은 기존에 갖고있던 빛에 대한 인식과 역할을 보다 자유롭게 변화하도록 만들었으며 빛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기술적으로 응용되어지는 인공광의 현란함으로 장소의 분위기를 새롭게 변화시킨다. 디스플레이 공간에 있어서 빛은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3) 오브제

오브제는 보는 사람 즉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의 잠재의식이나 정신작용을 강하게 일으키는 특별한 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오브제는 작품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배경의 역할이 되기도 한다. 오브제 표현은 작가의 창조적 행위로서,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독자적인 디자인 어휘로 작용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공간에 풍부한 의미를 전달한다. 또한 조각과는 달리 기능을 발휘하는 오브제는 비주얼 타겟, 혹은 공간을 지배하는 요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오브제의 소재의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 새로운 시각적 언어로써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형태와 재료와 질감의 연구와 표현은 오브제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특성과 표현의 아름다움을 제시한다.

#### 3.2. 자연 표현의 고착된 개념

##### (1) 고정상(固定像)

우리의 주변은 자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활동이 자연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예술의 역사는 자연을 탐구하려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자연은 모든 예술의 근원이며 아름다운 무한한 신비를 가지고 있다.<sup>6)</sup> 예술가들이 자연으로부터 모티브를 얻어 많은 작업에 활용한 것도 이러한 예술미가 승화되어 결국 인간 존중의 정신으로서 자연화를 통하여 인간의 자연미를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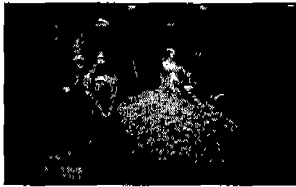
고대로부터 예술가들은 캔버스 혹은 종이에 예술성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표현기법은 2차원으로 순간적인 현상을 작가의 감정과 결부시켜 예술작품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5)김경재, 근대건축 이후 건축적 빛의 의미변화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25호, 2000년 12월

6)홍신희, 자연에서의 이미지 형상화에 관한 연구, 이대석론, 1986, p.4.

이러한 예술제작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간예술인 디스플레이에서는 3차원적 표현이 실시되며, 현대에 와서는 기계적인 도움 등으로 시간의 개념이 도입된 4차원적 전시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오브제를 고정상으로 연출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림 1> Matsuya Ginza, 1994



<그림 2> Denis Parent, st. sauvier, 1990

## (2) 정태성(靜態性)

자연은 보이지 않는 질서와 균형으로 이루어져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조화와 안정을 이루도록 구조화 되어있으나 경우에 따라 변화가 되어지기도 한다. 변화되는 자연의 구조와 형태 그리고 미적 특징을 재창조함으로써 독창적인 디자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자연성의 요소는 가장 자연스러운 디스플레이 요소로써 관람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형태와 모양이 정지된 형태로 구성되어진 모습에서는 어떠한 활력과 자연스러움을 찾아볼 수 없다. 자연의 이미지가 배경으로 도입되었을 뿐 관람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어렵다. 그림1과 2는 이러한 고정상과 정태성을 잘 나타내는 쇼윈도우이다.

## 4. 자연요소를 도입한 디스플레이 방법론

### 4.1. 우연성의 디스플레이

자연생태계는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으나 지형이나 기후 또는 천연자원과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돌발적인 우연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우연성은 필연성적인 요인이 아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연출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인간과 자연과의 교감을 풍부하게 해주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우연성은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는 관찰자에게서 나타나기도 한다. 디스플레이의 연출상황에서 과거의 기억이 불현듯 되살아나면서 무의식의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온 기억의 파편들이 디스플레이 현상과 조합되어 전해지는 이미지들은 병렬과 겹치기를 통해 상충된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 연상망(聯想網)이 생기며 우연적인 요소가 결합하여 제3의 이미지가 생성되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획될 수 없는 우연성의 힘을 외면하였다. 설령 그러한 힘의 존재를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관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자연의 참된 본질을 인식하고 예기치 못한 창조적 행위를 촉진시키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디스플레이의 성과를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우연성은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 때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이다. 인간은 우주 안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로서 본능이라든지 충동, 혹은 열정과 같은 것들에 의해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되면 인간의 감정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연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고 보는 것인데, 자연주의를 도입한 디스플레이 연출에서도 이러한 우연성은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3에서는 하늘을 층계부분에 고정시켜 패션매장에 들어온 고객에게 마치 하늘의 계단을 향해 올라가는 착각을 들도록 의도하는 구성으로 하늘을 담은 매장의 벽면은 마네킹에 연출되어있는 제품과는 별 관련성이 없어 보이나 두 이미지가 만나 고객의 머리 속에서는 제품을 입고 하늘을 올라가는 어떠한 우연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도록 의도된 것이다. 이러한 이중, 삼중의 이미지가 만나서 점점 더 현실에서 멀어지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비현실적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낸다.

그림4는 나뭇가지에 걸린 옷이 바람에 의해 날아가는 순간을 포착하여 연출된 형태이며 오랫동안 배경과 사물이 하나되어 보여지는 평안한 모습을 놓치지 않는다. 이미지보다는 소프트하며 따뜻한 자연을 만들며 마치 바람에 혼날리는 제품을 바라보는 듯 하다. 자연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연성'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러한 작업은 매체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유도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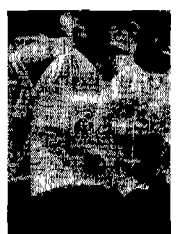
그림5은 홍콩의 핸드백과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매장의 쇼윈도우이다. 비닐백에 들어있는 물고기는 움직이는 자연의 금붕어이다.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자연의 금붕어보다 보다 화려한 색채와 구성으로 극적인 효과를 보이려 했으나 실제 살아있는 물고기보다 더욱 생명력 있고 움직이며 연출하는 우연적인 효과를 주기는 불가능하다. 핸드백의 크기와 형태를 응용하여 비닐봉투의 크기와 형태를 비슷하게 연출하여 제품의 이미지가 제작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으나 쇼윈도우에 진열된 자연의 금붕어는 색다른 우연성을 관람객으로 하여금 느끼도록 의도하고 있다. 결국 디스플레이는 우연과 기억을 엮



<그림 3> Newyok, 1996



<그림 4> Paris,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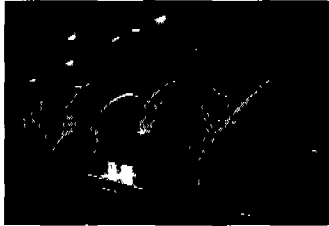
<그림 5> Opposite, HongKong, 1999

는 일, 찰나적이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을 고정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역할을 하며 시간여행을 가능하게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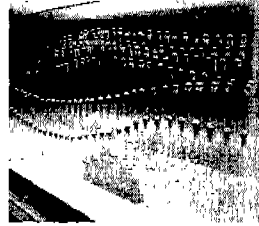
## 4.2. 동태성의 디스플레이

자연은 정지되어있는 물체가 아니다. 시간에 따라 많은 변화를 실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또한 자연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계절과 시간의 주기에 따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나, 다른 관점에서 다른 자연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자연을 반영하는 공간은 우주적·원리와 대자연의 이치를 반영하여 기후의 계절적 변화와 자연의 변화 그리고 햇빛, 바람, 자연의 소리 등의 변화와 이동에 따라 자연공간의 동태적인 인식체험이 가능하기도 하다.



<그림 6> Ginza La Pola, Japan,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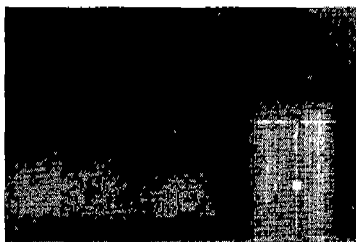


<그림 7> Shiseido Fukuoka Japan 1998

하이테크놀러지에 의한 빛의 규제와 조절은 쇼윈도우 공간에 울동감과 움직임의 역동적 생명력을 부여한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정형화되거나 순간적으로 멈춰버린 형태가 아닌 공간과 구성에 새로운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6 윈도우는 여름의 물결을 형상화시켜 지하에 위치한 화장품 매장의 쇼윈도우로 자연광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상태에서 인공조명과 분수의 물줄기로 자연의 힘차고 역동적이며 부드러운 느낌을 느끼도록 한다. 그림7의 플라화장품 매장의 쇼윈도우 또한 파도의 물결의 현상을 대담한 구조체의 사용과 강렬하고, 명쾌한 형태적 이미지와 공간의 동적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으며, 조명의 효과와 함께 오브제의 역동적 볼륨감을 구성하고 있다. 하얀 물보라 속에서 나타나는 물방울을 아크릴을 성형하여 사용하고 경쾌한 구성으로 나타내고 있다. 간혹 기계적인 장치로 이러한 구성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아크릴의 투명성과 조명의 적절한 조화는 자연의 물보라를 이미지화 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림 8> Swatch Shop, Mendini, 1996



<그림 9> Frozen Archaeology, SITE, 1985

그림8은 스와치 시계매장의 메인 스테이지코너 디스플레이 연출이다. 우주의 신비스러운 색상과 동태성으로 마치 우주선에 들어온 듯한 착각에 빠지도록 유도한다. 시계를 캡슐화한 연출 역시 제품기획의도가 전신부분까지 연관된 형태이다.

그림9은 사이트그룹의 건물 파사드형태이다. 마치 돌이 벽에서 떨어지는 듯 하다. 우주의 중력은 기본적인 작용이지만 이를 응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작용을 연출한 형태이다.

인간은 항상 움직이므로 고정되어있는 형태보다는 움직이는 동태성(그림10)을 가진 형태에 익숙해져 있으나 천장에 달린 수많은 발의 움직임에는 강한 인상을 받을 수 있다. 마네킹 연출의 새로운 형태로 볼 수 있는데 마치 우주를 떠가는 우주인의 모습으로 연상되어진다.

자연을 표현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쇼윈도우 공간의 디스플레이 제작물에서도 그림11 에서와 같이 날아가는 새를 표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뿌연 유리면 뒤로 마치 퍼퍼이는 날개 짓의 새를 보는 듯 하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정지된 동태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리면 뒤로 보이는 잔잔한 움직임의 순간포착은 재미있는 연출이 된다.



<그림 10> Shoes Show Room, SITE, 1987



<그림 11> WAKO Dept, 2000

## 4.3. 가변성의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컨셉과 테마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기획하고 있다. 하지만 공간과 설치적 제한으로 인하여 오브제의 제작시 고정요소에 대한 가변적 요소가 요구되기도 한다. 가변성은 형태를 손상시키지 않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서 성질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동안에 형태나 기능을 변경시키는 고유의 능력이며 변화에 적응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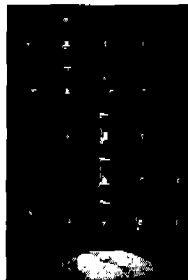
디스플레이 공간에서 가변성(可變性)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과 폭넓은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기능상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데 공간의 가변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되어야 하나 각 연출마다 요구 사항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음으로 모순이 생기기 쉬우나 극복하도록 설계되어지고 있으며, 그 기법으로는 공간의 영상설치 및 치수의 모듈화, 배치형상, 음향 반사판의 위치, 천장, 바닥 등에 계획되어야 한다. 디스플레이는 공간에 작가의 감각을 묘사하려는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써 이미지를 기억심상에 의한 지각적 이미지로, 또는 상상심상에 의한 관념적 이미지로 나타내려고 한다.<sup>7)</sup> 지각적 이미지와 관념적 이미지는 디스플레이 요소에 가변적인 역할을 하는데 영구적인 요소의 의미보다는 쉽게 변하면서 이미지를 자주 바꾸어주어야 할 여건으로서 가변성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디스플레이의 요소로서 가변성은 그림12과 같이 모니터나 기기의 활용으로 공간의 이미지가 가변적인 역할을 한다. 모니터에 나타나는 하늘, 바다, 사람, 상품들을 포함한 수많은 이미지들은 한정된 공간을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배치의 장점은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단순함과 지루함을 피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그림 12> Sony, NewYork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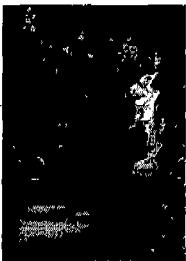


<그림 13> Birks Jewelers Montreal, 2000

그림13은 시계디스플레이으로써 시간을 이미지화시켜 모래시계를 기계장치로서 정기적으로 움직여준다. 시계의 시간을 부각시킨 형태이며 움직이는 모래시계로써 시계에 담긴 정확성과 신뢰감이 가변적인 형태로 나타나 강한 인상을 심어준다.

그림14은 자연의 소재를 도입한 대표적인 경우로 전시공간의 입구 부분이다. 인조 아이비등을 아치로 가변적으로 설치하여 통행하는 관람자들의 동선을 유도하며 마치 저택의 정원에 들어온 듯한 착각에 빠뜨들도록 기획되어지고 친근감 있는 자연을 체험하도록 한다. 이때의 인공조명은 자연조명과 마찬가지로 신선함을 느끼도록 디자인되어져 활기 있고 경쾌한 색채감을 느끼도록 한다.

그림15은 동경의 디자인 센터로서 건물의 외부에 빨간 화분을



<그림 14> Show Room, paris, 2000



<그림 15> Tokyo Design Center, 1992



<그림 16> Chofu Parco, newyork, 1995

을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흰색의 외벽에 놓인 빨간 꽃은 신선함과 미적인 요소를 제공한다. 이러한 화분은 일정기간 놓여지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다른 색상의 꽃이 등장하기도 한다. 가변성 디스플레이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그림16는 여름의 계절감을 상징하는 파인애플이 등장하지만 재료인 타이어와 파인애플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전체적인 실루엣과 색채로써 파인애플을 연상토록 하지만 조합된 형태를 해체할 경우 우산으로써 변형되는 가변형 연출은 현대 자연주의의 개념을 반영한 디스플레이로써 페타이어와 사용되어진 우산으로 자원의 재활용 측면의 응용이라 볼 수 있다.

## 5. 결론

동서양의 공통적인 자연주의 미학적 개념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연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연을 벗어나서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와 문화를 통하여 표현양식을 달리하여 지속되어 왔다. 서양에서의 자연은 학문으로서 구축되어왔으나 동양의 자연관은 넓은 사상 안에 산재되어있다. 하지만 자연을 표현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은 동서양을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디스플레이 공간에서 역시 자연을 주요 테마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관심은 디스플레이에 자연을 자주 등장시키는데 문제점인 고착된 생각을 확대할 단서를 찾아보았다. 이것은 자연에의 현상을 공간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렇게 현상적 차원을 활용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풍부하게 전달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상적 측면에서는 우연성, 동태성, 가변으로 자연의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데 이러한 특성을 가진 디스플레이 연출을 다양한 각도에서 사례 분석해 보았다.

다만 자연을 표현하는 기법에 있어서 순간의 모습을 응고된 형태로 자연을 도입하는 것은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인 변화를 무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관찰자의 시선을 자극하되 이것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잠재 의식 속에 인식되어진 과거와 미래의 상상으로 고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선하고 자극적이되 우연적인 즐거움을 선사해야 하는 것이다. 사용되어지는 재료 또한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뿐만 아니라 인공재료를 자연적 이미지로 변형하여 사용되기도 하는데 관찰자의 감성을 충분히 자극하여 공간에 풍부한 미적 어휘를 제공한다. 주재료로는 나무와 흙, 돌, 짚등이 사용되어져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하고 자연미를 최대한 살리면서 주변 자연의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디스플레이 표현의 자연은 이제 근원적인 자연을 열거시키나 배경으로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서의 자연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7)나인영, 실내공간의 이미지 표현에 있어서 자연성 적용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998.10

## 참고문헌

1. 정병관외, 현대미술의 동향, 미진사, 1987
2. 임석재, 미니멀리즘과 상대주의 공간, 시공사, 1999
3. 윤재근, 동양의 미학, 도서출판등지, 1993
4. 박길룡, 현상으로서의 건축, 국민대학교 조형논총 제13집, 1993
5. 김현아, 20세기말 서구 가구디자인에 나타난 한국 전통가구의 정신에 관한 연구, 홍대석사논문, 1999.
6. 김경재, 근대건축 이후 건축적 빛의 의미변화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00. 12
7. 윤도근, 건축공간에서 '투명성'의 디자인 효과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00. 12
8. 이상호, 인지적 공간개념에 의한 실내건축공간의 표현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23호, 2000. 6
9. 김현주, 건축에 있어서 '비어있음'의 표현요소와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998. 10
10. 이정열, 유리의집-투명성의 개념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4호, 2000. 9
11. 임종엽, 대중문화를 통해 본 현대의 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24호, 2000. 9.
12. 나인영, 실내공간의 이미지 표현에 있어서 자연성 적용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998.10
13. Inspiration 1995~2000
14. Schau-fenster & Shop Design 1995 ~2001
15. View & Review 1994~2001
16. 디스플레이 년감. 1998~1999

<접수 : 2001. 5. 2>